

▶ 달러/원 주간 전망

• 강달러 촉발·외인 주식 수급 재료 집중... 변동성 확산 경계

서울, 4월8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국내외 굵직한 재료를 소화해야하는 만큼 변동성을 대폭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30-1,365원이다.

미국의 견조한 경기에 따른 달러 강세와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중동 지정학적 우려와 이로 인한 유가 상승, 그리고 위험선호 심리 위축 등에 전주 달러/원 환율은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인 1,350원대 중반으로 올랐다.

반도체 경기 호황에 기대 외인 주식 자금 유입에 환율은 1,350원대에서 연고점을 경신하는 과정이 이전과 달리 대체로 차분하다. 지난주 외인들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1.5조원어치를 사들였다.

하지만, 미국의 강한 성장이 야기하는 통화정책 차별화 현상이 달러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상황 속에서 달러/원 단기 고점 인식은 잘 형성되지 않고 있다.

원화가 글로벌 달러 흐름을 밀접하게 쫓는 상황에서 이번 주는 강달러 확산 여부를 결정지을 미국 물가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어 글로벌 외환시장은 또 한번의 변동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견조한 고용이 확인된 이후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마저 흔들린다면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이에 따른 강달러가 글로벌 외환시장 전반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국내 주요 상장기업이 배당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배당 역송금 수급이 본격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의 반응폭은 한층 커질 수 있다.

로이터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금주 주요 상장기업의 배당 지급에 따른 외인 배당 몫은 약 1.3조원이다.

또한, 금주에는 여러 중요한 지표와 이벤트가 예정돼있다.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록 공개,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 유럽중앙은행(ECB) 정책회의, 중국 물가지표와 수출입 지표 등이 대기하고 있다.

ECB 회의 결과에 따른 유로 반응에 달러 방향이 결정될 여지가 큰 만큼 이래저래 달러 변동성이 확대될 리스크를 열어둬야할 듯하다.

국내 재료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4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등이 예정돼있다.

NH투자증권은 주간 투자전략에서 "현재 여야 간에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선거 결과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분야 주식에 대해서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관련 주식에 대한 외인 자본 유입이 두드러진 만큼 총선 결과에 따른 외인 매매 동향이 원화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세계 5대 이슈

⊙ ECB 6월 인하 시그널 찾기

오는 11일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한다.

트레이더들은 6월 25bp 인하 가능성을 100%에 가깝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심리를 유지하려면 청신호가 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정책결정권자들이 6월을 첫 번째 인하 시기로 명확히 신호했다. 매파인 로버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도 반대하지 않는다.

3월 인플레이션율이 2.4%로 예기치 않게 하락한 것은 ECB에 더 큰 자신감을 줄 것이다.

따라서 ECB는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5월에 발표될 1분기 임금 성장률 수치를 검토하길 원하는 정책결정권자들이 6월 인하에 대해 얼마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가 문제다.

⊙ 유가 움직임

지정학적 혼란과 여러 산유국의 공급 차질로 인해 유가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회복했다.

중앙은행들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이른바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장의 기업들에게는 원유 가격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다른 나라보다 금리를 더 조금 인하할 수 있다는 가정은 올해 달러를 거의 전반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수입국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에너지 수입 비용이 상승했다.

이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막으려 자국통화를 방어하기 위해 개입했거나 개입하겠다고 위협한 각국 통화 당국을 힘들게 하고 있다.

⊙ 美 주요 은행 분기 실적

곧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로 어닝 시즌이 시작된다.

LSEG IBES에 따르면 4분기 실적 호조에 이어 S&P500 기업의 1분기 이익은 전년비 5%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올해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견조한 기업 이익이 밸류에이션 상승

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P500지수의 주가수익비율은 약 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JP모간체이스, 씨티그룹, 웰스파고는 12일 실적을 발표한다. 델타항공과 블랙록의 실적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 고용주들이 지난달 예상보다 훨씬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꾸준히 인상해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뒤 10일 발표될 3월 인플레이션 지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中 경제 회복?

오래 기다려온 중국 경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가 계속 나타나면서 지난주 중국 증시가 수개월래 최고치에 근접하는 상승세를 유지했다.

최근 상하이지수는 1년여 만에 가장 빠른 제조업 경기 확장세를 시사한 데이터에 힘입어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어서 서비스업 활동 가속화를 보여주는 더 희망적인 데이터가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음을 신호했다.

이번 주에는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지수, 무역 데이터 등 이러한 낙관론을 뒷받침하거나 뒤엎을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소비 심리를 가늠하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한편 소비자물가지수는 설 연휴로 인해 수치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전 수치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하면서 중국 증시가 11월 이후 고점을 기록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을 받을 것이다.

⊙ 주요국 금리 결정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ECB) 정책회의 앞뒤로 정책회의를 갖는다. 10일에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12일에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대기중이다.

금리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레이더들은 금리 인하 시기와 정책결정권자들이 미묘한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알고 싶어한다. 1월 캐나다 경제가 0.6% 성장해 1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시장은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줄였다.

뉴질랜드는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4.5%를 상회하고 있어 8월까지의 정책 완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는 최근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가 서비스 물가 상승을 부추기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장기화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어닝시즌 앞두고 높은 밸류에이션에 주목

뉴욕, 4월8일 (로이터) -

미국 주식시장은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앞으로 몇 주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S&P500지수는 2019년 이후 가장 강력한 1분기 성적을 거둔 뒤 연초 대비 9% 이상 상승한 상태다. 그러나 주가가 이 같은 속도로 계속 상승하기에는 기준이 높아져 기업들이 강력한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LSEG 데이터스트림에 따르면 S&P500지수는 향후 12개월 예상 수익의 20.7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3월 말에 기록한 2년여 만의 최고치인 21.2배에 근접한 수준이다.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채권의 매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익 증가세가 평범하다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줄어들 수 있다.

또 투자자들은 탄력적인 성장과 소비자물가 둔화라는 이른바 골디락스 환경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업들의 시각에 주목할 것이다.

최근 몇 주 인플레이션 지속 신호에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 금요일에 예상보다 강한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후 주가는 상승했다.

유위 마 BMO웰스매니지먼트 CIO는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상당한 상승을 이어가려면 수익에 대한 예상치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기업으로는 델타항공, 블랙록, JP모간체이스 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10일에 발표될 3월 미국 소비자 물가 데이터에도 주목할 것이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1분기 5%의 수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23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고금리, 원자재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한 기업 가격 결정력 하락으로 마진이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4분기의 수익은 10.1% 증가했었다.

지난해 증시 상승을 주도한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의 주가 성적이 엇갈린 가운데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등 메가캡의 실적이 투자 심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브라이언트 밴크롱카이트 올스프링글로벌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제 이 기업들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은 모든 기업이 수요 동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명확히 밝히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연준은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을 것이다. 견조한 실적과 기업들의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기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 없이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경제가 너무 강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3월 미국 고용지표가 이를 뒷받침했다. 지난달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30만3000명 증가해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다. 선물 시장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약 70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1월에 예상했던 150bp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기업 실적 부진은 경제의 강세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것이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케빈 마 헤니언앤월시자산운용 CIO는 "악재는 모두가 기대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4월8일(월)

- ⊙ 금융위원회: 위원장 벤처업계 간담회 (10:00)
- ⊙ 금융감독원: 2024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11:00)
-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우리 경제 혁신 생태계 최일선 현장 방문 (16:30)
- ⊙ 기획재정부: 김병환 제1차관,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 (17:00)

4월9일(화)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수출기업 간담회 (10:00)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핀테크 투자생태계 지원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14:00)
- ⊙ 기획재정부: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 (11:00)

4월11일(목)

- ⊙ 금융위원회: 2024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 (12:00)
- ⊙ 한국은행: 2024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 한국은행: 2024년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 발표(9:00)
- ⊙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09:30)
-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4월호) 발간 (10:00)
- ⊙ 기획재정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 (12:00)
- ⊙ 관세청: 2024년 4월 1일~4월 10일 수출입 현황 (배포시)

4월12일(금)

-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경제상황평가(2024.4월)
- ⊙ 통계청: 2024년 3월 고용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4년 3월 고용동향 분석 (09:00)
- ⊙ 기획재정부: 2024년 4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4월8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4월 8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JPY	2월	3112.5B	438.2B
4월 8일	17:30	유로존	셴틱스지수	4월	-8.5	-10.5
4월 8일	23:00	미국	고용추이	3월		112.29
4월 9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3월		39.1
4월 9일	19: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3월		89.40
4월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YY	3월		8.7%
4월10-17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3월		1,450.0B
4월10-17일		중국	FDI (YTD)	3월		-19.90%
4월 10일	08:50	일본	기업상품물가지수 MM	3월	0.3%	0.2%
4월 10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4월5일 주간		195.6
4월 10일	21:30	미국	CPI MM, SA	3월	0.3%	0.4%
4월 11일	03:00	미국	연방예산	3월	-195.00B	-296.00B
4월 11일	10:30	중국	PPI YY	3월		-2.7%
4월 11일	10:30	중국	CPI YY	3월		0.7%
4월 11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월1일 주간	214k	221k
4월 11일	21:30	미국	PPI MM	3월	0.3%	0.6%
4월 12일		중국	수출 YY	3월		7.1%
4월 12일		중국	수입 YY	3월		3.5%
4월 12일	13:30	일본	산업생산 수정치 MM SA	2월		-0.1%
4월 12일	21:30	미국	수입물가 MM	3월	0.4%	0.3%
4월 12일	21:30	미국	수출물가 MM	3월	0.5%	0.8%
4월 12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4월	79.0	79.4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4월8일 (일)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라디오 인터뷰 (9일 오전 2시)
- ⊙ 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몬태나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커뮤니티와 대화 참석 (9일 오전 8시)
- ⊙ 휴장국가: 인도네시아 (12일까지), 태국 등

4월9일 (화)

- ⊙ 휴장국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4월10일 (수)

- ⊙ 뉴질랜드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오전 11시)
-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신탁협회 연차 총회서 연설 (오후 3시)
-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발표 및 통화정책보고서 (오후 10시45분)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유럽은행임원포럼 화상 토론 참석 (오후 9시45분)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소셜파이낸스인스티튜트 패널토론 참석 (11일 오전 1시45분)
-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3월 19-20일 회의록 공개 (11일 오전 3시)
- ⊙ 휴장국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4월11일 (목)

- ⊙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발표 (오후 9시15분),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기자회견 (오후 9시45분)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 연방주택대부은행 2024년 심포지엄서 연설 (오후 9시45분)
- ⊙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뉴욕경제클럽 하이브리드 이벤트서 연설 (12일 오전 1시)
-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 IMF-세계은행 춘계회의 참석 (12일 오전 0시)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주최 행사 토론 참석 (12일 오전 2시30분)
- ⊙ 휴장국가: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등

4월12일 (금)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애틀랜타 연방은행, 머피 공공정책 연구소 등 공동 주최 심포지엄서 연설 (13일 오전 3시30분)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등 공동 주최 2024년 핀테크 컨퍼런스서 연설 (13일 오전 4시30분)
- ⊙ 휴장국가: 인도네시아, 태국(16일까지) 등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분석) - 얼어붙은 외환시장... 금리 인하·트럼프가 녹일까?

런던, 4월4일 (로이터) -

트레이더들과 투자자들은 글로벌 금리 인하와 박빙의 미국 대선이 세계 외환시장을 거의 4년 만에 가장 깊은 소강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과거 변동성과 예상 변동성(일정 기간 동안 가격 변동폭)이 급락해 외환 트레이더들은 각국 금리의 엇갈린 움직임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도이치은행의 내재 통화 변동성 게이지를 면밀히 추적한 결과, 2년 만의 최저치 부근을 기록했으며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인 아문디의 글로벌 외환 부문 책임자인 안드레아스 코닉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외환 시장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며 "미국 (채권 시장) 금리는 오르내리지만 다른 나라 금리는 모두 따라가기 때문에 차이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코닉은 "누가 먼저, 얼마나 인하할지...그리고 미국 대선이 앞으로 외환시장의 이벤트, 큰 거시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urrency volatility has dropped as central banks hold rates

Deutsche Bank's currency volatility index (CVIX) fell to its lowest since 2021 in March and is not far off levels last seen before the COVID-19 pandemic



Note: Deutsche Bank's CVIX is a measure of expected volatility across nine major currency pairs and is derived from options prices
Source: LSEG | Reuters, April 2, 2024 | By Harry Robertson

중앙은행들은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3월에 스위스 중앙은행은 주요 중앙은행들 중 처음 금리를 인하했다. 올해 후반에는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이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후 투자자들이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줄이면서 미국 금리가 상승했지만, 유로존 채권 수익률도 대체로 그 뒤를 따랐다.

JP모간 프라이빗 뱅크의 글로벌 외환 전략 책임자인 사무엘 지프는 "실질적인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중앙은행 간 차별화가 심화되는 것"이라면서도 유럽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대체로 비슷한 경로를 따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 트럼프 카드

도널드 트럼프는 또 하나의 변수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통령에 다시 당선된다면 10%의 보편적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올해 2월에는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클레이즈의 글로벌 외환 전략 책임자인 테모스 피오타키스는 "관세와 추가 세금은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유로와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바클레이즈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관세로 인해 달러가 3% 상승할 수 있으며 유로가 달러와 등가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사가 요동치면서 하루 7조500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U.S.-German bond correlation hit record high in December

52-week correlation between weekly changes in U.S. and German 2-year bond yields



Source: State Street, LSEG | Reuters, April 2, 2024 | By Harry Robertson

올리버 브레넌 BNP파리바 외환 변동성 전략가는 옵션을 통해 2016년 트럼프의 승리 이후 폭락한 멕시코 페소화MXN=, 폴란드 즈위티PLN=, 위안화CNH=D3의 움직임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 통화의) 9개월에서 1년 범위의 변동성은 매우 높는데,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통화를 보면 11월 선거를 전후로 꼬임이 있지만, 이 세 통화는 꼬임이 엄청나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변동성 하락이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캐드림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제이미 니븐은 "현재 리스크를 보면 외환시장에는 장기 평균보다 훨씬 적게 할당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리 움직임이 변동성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있다.

일본은행은 3월에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지만, 트레이더들이 일본의 금리가 당분간 제로 부근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엔화 가치가 1990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전략가들은 이로 인해 중국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가 요동쳤으며, 한 지역의 변동이 시장 전체에 파급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Dollar-yuan volatility spiked in late March

One-month implied volatility in dollar-yuan rose sharply as Chinese authorities let the yuan fall



Note: One-month implied volatility is a measure of investors' expectations of volatility over the next month, based on options prices
Source: LSEG | Reuters, April 2, 2024 | By Harry Robertson

일본 당국이 자국 통화를 지지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면 또 다른 충격을 줄 수 있다.

유럽에서는 스위스의 금리 인하로 유로화가 스위스 프랑 대비 유로화 창설 이후 최대 분기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카미낙의 채권 부문 공동 책임자인 기요메 리제이드는 "변동성이 낮을 때는 캐리 트레이드 전략이 특히 매력적"이라고 밝혔으며 변동성이 낮으면 주식 또는 채권 포트폴리오를 헤지하는 비용도 저렴해진다고 덧붙였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표) - 주요 상장기업 외인 배당 지급 규모·일정...

서울, 4월4일 (로이터) -

다음은 로이터통신이 4일 현재 추산한 주요 상장기업의 외국인 배당 지급 규모와 지급일 정보다.

회사명	예상 외인 배당액	배당 지급 예정일
신한금융지주 055550.KS	1,643억원	4월 5일
메리츠금융지주 138040.KS	830억원	4월 5일
하나금융지주 086790.KS	3,291억원	4월 9일
우리금융지주 316140.KS	1,893억원	4월 9일
LG 003550.KS	1,811억원	4월 9일
KB금융지주 105560.KS	4,619억원	4월 11일
삼성물산 028260.KS	947억원	4월 12일
기아 000270.KS	9,131억원	4월 15일
삼성전자 005930.KS	1조3,792억원	4월 19일
현대차 005380.KS	9,865억원	4월 19일
삼성화재 000810.KS	4,208억원	4월 19일
DB손해보험 005830.KS	1,770억원	4월 19일
현대모비스 012330.KS	1,312억원	4월 19일
현대글로비스 086280.KS	1,144억원	4월 19일
삼성생명 032830.KS	1,255억원	4월 19일
LG화학 051910.KS	1,212억원	4월 23일
SK하이닉스 000660.KS	1,160억원	4월 24일
SK텔레콤 017670.KS	944억원	4월 25일
케이티엔지 033780.KS	2,271억원	미정
KT 030200.KS	2,154억원	미정
S-OIL 010950.KS	1,304억원	미정
기업은행 024110.KS	1,154억원	미정
총 액	6종 7,710억원	

- * 로이터가 기업 공시 등을 토대로 추산한 금액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배당금 합산
- * 외인 배당액 규모 1천억원 상당만 집계
- * 배당은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배당 지급일 확정될 때마다 업데이트할 예정

(박예나·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달러/원 월간 전망①) - 단단한 달러와 계절적 수급 변수... 상단 상향 조정

서울, 4월1일 (로이터) 박예나·문윤아 기자 -

4월 달러/원 환율은 주요국 경기와 통화정책 차별화 전망에 글로벌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계절적 요인인 배당 역송금 수급에 영향 받으며 이전보다 고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317.5-1,363.5원으로 제시됐다.

지난 3월 달러/원 일간 고점은 1,353원으로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다. 견조한 미국 경제가 촉발한 강달러와 엔·위안 약세가 동반 진행된 결과다.

4월에도 미국 경제의 차별화와 이에 따른 달러 움직임에 원화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이 과정에서 엔과 위안이 변동성을 자극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시장참가자들은 진단하고 있다.

다만, 달러의 의미있는 약세 전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터라 달러/원 하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또한 그간 수급 쏠림이 크진 않았지만 4월에는 계절적으로 외인 배당 역송금 수급에 따른 시장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달러/원 환율 월간 고점을 1,380원까지 열어뒀다.

※ (표)-주요 상장기업 외인 배당 지급 규모·일정..내달 19일 삼성전자 등 대거 집중

※ 전문가별 코멘트

기관명	설문참가자	예상환율 범위	
신한은행	조가영 과장	1,330	1,360
우리은행	박범석 과장	1,320	1,360
하나은행	고규연 팀장	1,330	1,365
DGB대구은행	이응주 차장	1,320	1,370
IBK기업은행	이철우 차장	1,320	1,370
KDB산업은행	임준영 과장	1,320	1,380
NH농협은행	전병철 과장	1,300	1,360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	1,305	1,345
신한투자증권	하건형 연구원	1,300	1,360
DB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	1,337	1,359
NH투자증권	권아민 연구원	1,300	1,360
평균		1,317.5	1,363.5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달러/원 월간 전망②) - 단단한 달러와 계절적 수급 변수... 상단 상향 조정

서울, 4월1일 (로이터) 박예나·문윤아 기자 -

월 달러/원 환율은 주요국 경기와 통화정책 차별화 전망에 글로벌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계절적 요인인 배당 역송금 수급에 영향 받으며 이전보다 고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317.5-1,363.5원으로 제시됐다.

다음은 전문가별 코멘트

▲ 조가영 과장(신한은행)

"3월 말의 비디시한 분위기가 4월 초입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배당금 시즌인 점 또한 달러/원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ECB가 금리인하를 하진 않겠지만 도비시한 스탠스를 보일 경우 이 역시 달러 강세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4월 후반으로 갈수록 연준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면서 대외적인 스탠스 변화가 있을 수 있고 GDP 등 경제지표 호조 보일 경우 위험선호 분위기에 달러/원은 무거워질 수 있다."

- 예상 거래범위 1,330-1,360원

▲ 박범석 과장 (우리은행)

"3월 FOMC에서 점도표상 금리인하 횟수를 확인한만큼 연준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최근 원화 약세는 엔화, 위안화 약세에 연동된 만큼 4월은 일본과 중국의 통화관리가 달러/원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두 통화 모두 저항선으로 올라 추가 약세는 쉽지 않을 듯하다. 한편, 외인 인플로우와 중공업 네고가 달러/원 하락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배당금 역송금 시즌에 따른 달러 매수세가 달러/원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본다."

- 예상 거래범위 1,320-1,360원

▲ 고규연 팀장(하나은행)

"미국과 non미국 간의 경기회복 격차 속 기준금리 정책 속도 차이로 인한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가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350원이 강력한 저항선이 되지 못함을 확인하며 환율은 다음 고점인 1,365원까지 열려있다. 다른 해에 비해 배당금 송금 수요가 줄지만, 여전히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공업 등 대형 수출업체 수주 매물이 대기중인 것으로 보여 전고점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 1,365원이 뚫리면 1,400이 눈앞에 들어오는 상황이라 공방이 예상되며 일본 정책당국 방어에도 관심이 모여 환율은 어느 정도 상박 경직성은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 예상 거래범위 1,330-1,365원

▲ 이용주 차장 (DGB대구은행)

"강달러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다른 주요국들은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금리 인하 전망에도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플레이션 경계도

여전하다. 다만, 강달러 여건에서 원화가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점은 원화 약세를 어느정도 제한할 것이다."

- 예상 거래범위 1,320-1,370원

▲ 이철우 과장(IBK기업은행)

"향후 2분기를 지배할 테마는 미국과의 디커플링 정도다.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을 더 이상 따라가기 버거운 나라부터 기준금리 인하 혹은 양적 완화와 같은 형태로 나오고 이 과정에서 2022년도 상반기처럼 환율이 대가를 치뤄야할 수도 있어 보인다. 2022년도가 미국의 빅 스텝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라가는 지였다면 올해는 얼마나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을 버텨내느냐가 관건이다. 이미 임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된 위안화와 엔화보다 원화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괜찮은 편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상방으로 더 열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 예상 거래범위 1,330-1,380원

▲ 임준영 과장(KDB산업은행)

"강한 미국 경기와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감소, 이에 따른 연준과 타 중앙은행간 정책 스탠스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달러 강세 지속될 듯하다. 미국 경기 낙관론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미국내 투자 증가와 대선 전 재정지출 확대 등이 지지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양회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 온도차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거나 강달러 재료를 압도하기에는 부족하며,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도 수급상으로 환율 하단을 꾸준히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 예상 거래범위 1,320-1,380원

▲ 전병철 과장(NH농협은행)

"국내 증시 관련 외국인 순매수세 연장과 수출업체 네고 물량으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본다. 달러/원 1,350원 후반 레벨에서는 당국 개입 경계감으로 상당 저항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4월 삼성전자 배당금 역송금 수요와 환율 하단에서 대기하고 있는 저가 매수는 환율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예상 거래범위 1,300-1,360원

▲ 김유미 연구원(키움증권)

"달러의 추가 강세가 제한되면서 달러/원 환율은 1,300원 초반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 예상 거래범위 1,305-1,345원

▲ 하건형 연구원(신한투자증권)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속 통화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나 국가별 차별적 물가 안정 속도에 통화정

책 완화 속도에 차이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물가 안정이 더딘 미국의 더딘 통화완화 전망으로 내외 금리 차에 따른 강달러 압력 지속 예상된다. 달러/원 역시 통화정책 차별화로 인한 강달러 압력 상존하나 非미국의 경기 모멘텀 강화에 따른 경기 차 축소로 강달러 압력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계절적으로 배당 및 이자 역송금 수요 등에 달러 순공급이 확대되는 점도 완화 강세 요인이다."

- 예상 거래범위 : 1,300-1,360원

▲ 문홍철 파트장(DB금융투자)

"중국이 위안 시장 개입에 변화를 보이면서 위안 약세가 급격히 진행 중이고, 원화도 동반 약세다. 미국과 미국의 지역간 펀더멘털 격차가 금리 격차로 이어지려 하고 이는 달러 강세를 당분간 유도할 것이다. 올해 2분기 중에 단기재정증권 발행이 줄면서 달러 유동성이 감소하면 연준의 대응 여하에 따라 달러 가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연준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 환율 하락세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거래범위 1,337-1,359원

▲ 권아민 연구원(NH투자증권)

"단기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환시개입 경계감에 달러/원의 추가 상승 름은 제한될 전망이다. 중국 위안의 경우 당국은 매일 오전 고시환율을 낮춰 고시하는 방식으로 통화가치 방어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단기 저항선은 1,360원 선으로 전망한다. 다만 달러지수 자체의 방향성을 보면, 견조한 지지력이 이어지고 있어 달러/원 하단을 크게 낮춰보기도 어렵다. 3월말 스위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스웨덴, 캐나다 및 유로존 등 달러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선진국 통화의 약세 압력이 진행 중이며 이는 상대적인 달러 강보합 요인이다. 국내 이슈로는 4월 국내 배당시즌과 맞물려 외인 배당 역송금 수요라는 계절성이 존재한다. 4월 중후반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달러/원 환율은 1,300원대 초중반의 횡보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 예상 거래범위 1,300-1,360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